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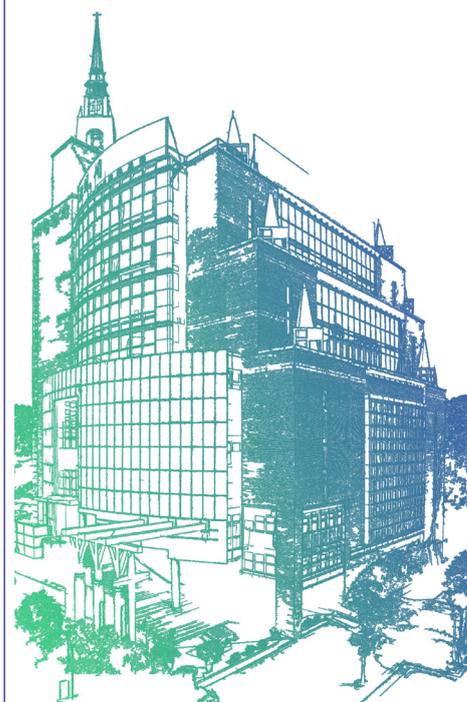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아모스**

심판의 주 되심

(아모스 9:1 - 15)

원로목사 **이종윤**



아모스 선지자는 황충의 재앙, 불의 재앙, 다림줄재앙, 그리고 여름실과 한 광주리의 환상에 이어 심판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단곁에 서신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시면서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모습을 말씀합니다.

1. 성전에서 부터 시작되는 심판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1절).

제단은 성소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불태워 바치는 곳입니다. 제단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를 하시며 원수 된 우리를 화목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단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평강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먼저 임하는 대상은 유대인이며 그후에 믿는 자들과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2. 피할 수 없는 심판

“그들이 파고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2-4절).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도,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 다른 나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끌어내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도망을 가고,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웅대하심 앞에 인간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7절).

배신자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만 백성중에서 뽑으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 회복의 날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11절).

아모스서에는 ‘그 날’이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2:16, 8:3,9,13). ‘그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며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중생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날은 천지가 개벽을 한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입니다. 바로 ‘그 날’에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이 계승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므로 무너진 다윗의 집이 다시 일어나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너진 영적인 집이 일으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12절).

메시아 시대는 유대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습니다. 그런데그들 중 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며 만방의 이방백성들도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는 물질의 번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질의 번영은 생명의 번영을 말합니다. 곡식이 얼마나 빨리 익는지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을 뒤이어 씨 뿌리는 자가 따라잡니다. 오늘 날 표현으로 이모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확이 남보다 배로 늘어나고 포도나무에서 단포도주가 흘러 넘치고 작은 산, 곧 목장은 잘 되어 쪼가 많이 생산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쪼은 복음을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는 육신적인 부요가 아닌 영적인 부요가 넘쳐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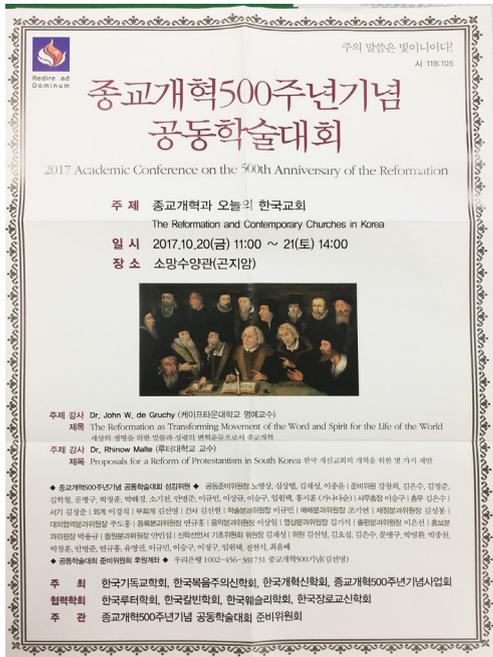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안전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에 모아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재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성전,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끊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여전히 무너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그 날, 하나님앞에서 다시는 땅에서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공동학술대회

2017.10.20(금) ~ 21(토) 오후2시 / 소망수양관



올해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의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한지 500주년 되는 해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학술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한국기독교학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주최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의 신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한국교회사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본 학술대회는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종교개혁의 신앙과 신학의 토대 위에 오늘의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 그리고 하나 됨을 위한 역사적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도움과 참여를 바란다.



2017 성경 암송대회

범위: 베드로전서 1~5장
본선: 10월 13일(금) 오후 7시

2017년도 성경암송 본선은 베드로전서 1-5장이다. 예선은 10월 1일(주일)에, 본선은 10월 13일(금) 오후 7시에 시행한다. 교육1국에 한하여 미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장을, 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3장을 암송한다. 암송 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은 NIV(1984년 개정판) 성경으로 한다.

한편 성경암송대회 전까지 수요일예배 설교를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리브가 전도회 (1) 이경근 하영인 (1) (다음 주 계속)

영아부 교사 모집

영아부에서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영아부의 교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사무국에 지원하여 주시기거나, 관계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부장 백영자권사 : 010-3755-6755
교육위원회 서기 김혜연 집사 : 010-3923-9913)

영동시찰회 개최

8월29일(화) 오전 11시 묘동교회
영동시찰회(시찰장 이요한목사)가 8월 29일(화) 오전 11시 묘동교회에서 모인다.

예수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같이

(눅 13:18-21)

이종윤 원로목사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외적인 확장을,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내적 성장을 말씀하는 것이다. 본문 19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했다.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지 손바닥에 놓고 보면 마치 바늘귀만큼 작다. 성경을 보면 천국은 이미 온 것처럼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올 것처럼 보인다.

첫째, 겨자씨는 시작은 미미하나 점점 성장해서 결국은 세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가득 채워지게 된다.

임금이 사는 집을 궁궐이라고 하고 도둑놈들이 사는 집은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처럼 죄인들이 아무리 큰 집에 산다고 해도 그 곳은 감옥일 뿐이다. 천국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천국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시므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주신 목적은 당시 제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씨뿌리는 비유를 주셨다.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땅은 옥토 뿐이었다.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실망할 때 예수님은 "겨자씨를 보아라 그것은 지극히 미미하고 작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겨자씨가 밭에 부러질 때 큰 나무를 이루고 지나가는 새들도 거기서 쉬을 얻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부단히 전도해야 한다.

우리는 작은 겨자씨에서 웅장한 나무를 볼 줄 아는 영적 눈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이다. 생명을 가진 씨앗은 반드시 성장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천국은 여인이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퍼져나간다. 교회의 내적 성장은 바로 누룩의 비유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우리는 누룩이 주는 교훈처럼 먼저 자신의 내면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천국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도 오시면 성도는 변화하게 된다. 먼저는 마음에 원광과 불꽃이 사라지게 된다. 거짓과 불의와 위선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가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은사를 활용하여 천국이 확장되는 일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변했다. 누룩을 통해서 솔로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향기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도 회심을 한 후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근신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금방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영국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었을 때 영국을 오늘의 영국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생 운동, 바로 저 유명한 요한 웨슬레 운동이고, 그 운동이 감리교회의 출발이 되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지도력있는 정치가나 경륜높은 교육가가 나왔다고 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누룩운동이 교회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누룩의 비유는 행동을 요청하는 비유이다. 누룩과 같이 자신과 형제를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성장하여 가정과 사회, 국가에, 나아가서는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박노철목사 외 50명 서울교회 성도 상대로 무더기 고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문기일통지서

사 건 2017카합 81116 방해금지가처분
채 권 자 박노철외 50명
채 무 자 김도형외 65명

위 사건 심문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17. 9. 6. 14:10

장 소 동관 제358호 법정[1번 법정출입구 이용]
2017. 8. 16.

법원주사 김창기



- 주 의 1.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2.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건번호(2017카합 81116)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사건진행 ARS는 지역번호없이 1588-9100 입니다. 바로 청취하기 위해서는 안내음성에 관계없이 '1'+9+[열린번호 000210 2017 071 81116]*'를 누르세요.

*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소재지 : 서울중앙지법,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담당 재판부 : 제51민사부
02)530-2855(결정/이의,취소/담보취소),
전 화 번 호 : 1706(해제), 1895(소송구조) e-mail :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별지 채권자 목록 기재와 같음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도심공향타워 8,14,16층)
담당번호사: 정현수, 박민웅

채 무 자 별지 채무자 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예배방해 등 배제청구권

신청취지

- 채무자들은 채권자 박노철이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에 출입하여 별지 4 목록기재 각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들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 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51의 채권자들이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 내 채권자 박노철이 인도하는 예배의 예배장소에 입장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 나.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51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원고 박노철이 인도하는 예배 중에 고성·욕설·움싸움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채무자들이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각자 채권자 박노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1,000,000원 씩을 지급하라.
 - 나. 채무자들이 제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각자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51 기재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1,000,000원 씩을 지급하라.
- 집행관은 제1, 2, 3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지난 1월 15일 이후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많은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예배당 진입 시도를 했던 박노철목사의 모든 행동은 단지 고소 채증 사진을 찍기 위한 퍼포먼스 였던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 돌계단에는 박노철목사 측 사람들의 집회 준비를 해놓고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길게는 10분, 짧게는 1.2분 진입 시도를 했던 박노철목사는 때로 고소를 위한 채증을 위해 직접 핸드폰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는, 목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였다.

박노철목사 측은 소란함을 유발하여 현장을 채증하고, 채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박노철목사는 유유히 돌계단 쪽으로 걸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회를 인도하곤 하였다.

이번 고소건은 6월 4일(주일), 6월 7일(수요일), 6월 11일(주일) 박노철목사가 예배당 진입 시도 시 이를 막거나 피켓을 들고 서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간혹 멀찍이 서있지만 했지만 사진이 찍혀 고소를 당한 성도도 여러 명 있었다.

고소인 박노철목사는 담임목사로서 서울교회의 모든 법과 규정을 부인하고, 2016년 후반 당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므로 서울교회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켰으며, 무엇보다 2017년은 안식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이같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고소를 일삼고 있다. 박노철목사는 오히려 서울교회의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장본인임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참된 예배에 대한 의지도 없이 오직 채증만을 위한 행위, 또 채증 자료를 편집, 합성하여 고소를 일삼는 일이 사람의 눈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한편 원로목사님도 당회장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박노철목사가 단독으로 고소하여 지난 8월 16일(수요일) 수서경찰서에서 수 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고소된 박노철목사 외 51명으로부터 고소당한 서울교회 성도는 모두 66명이며, 고소인 다수가 2010년 이후에 서울교회에 등록된 사람이다. 고소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노철 강석조 강일량 고성진 권신의 김광룡 김민철 김숙연 김용환 김은연 김장섭 김주년 김필임 남현주 마승우 문금희 박권선 박영신 박종권 박종녀 박창률 박철용 박형준 서경학 신봉하 신준선 안준홍 양지훈 유선희 유윤상 윤계진 윤원규 윤혜련 은기장 이덕진 이영숙 이인표 이진화 이행남 임병석 임흥수 정창빈 조금실 주차흙 진교남 최광혁 최유진 최창구 하옥봉 하희선 홍현미





십자가 군병으로 거듭나기를



김광래 집사
(비전2020운동본부)

지난 8월 19(토) 오후 2시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신교대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새로이 거듭남을 알리는 진중세례식이 드려졌습니다.

교회의 분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총 여섯 곳에 예정되어 있던 올해 진중세례식이 두 곳으로 축소되어, 비전2020본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있다는 무거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던 중,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는데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진중세례식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진중세례가 비성경적이라고도 하지만 젊은이들의 전도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진중세례야말로 선교의 황금어장이요, 민족복음화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의 그 원통에 도착한 후 안보 관광지로도 유명한 「을지전망대」에 올랐으나 산중턱까지 피어오른 구름으로 비무장지대 관찰은 녹화된 모니터로 대신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는 불안한 시기였지만 병영에서의 장병들은 혼란 없이 평소와 같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국토방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장소인 신교대교회에 도착하여보니 너무 협소하고 낡고 불편한 시설들로 우리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병사들을 투입해 주셔서 예배당은 금방 정리가 되었으며 예배와 세례를 위해 200여명의 훈련병들이 절도 있게 입장하여 예배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신세대 훈련병답게 마음껏 목청 높여 부르는 찬양과 울동으로 예배당은 금방 열광의 도가니로 변하였고 그런 그들에게서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벗어버리고 평안함으로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그러한 모습들은 비록 짧은 훈련기간이지만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음을 짐작케 하였습니다.

특히 류종기 집사의 특별 찬양과 임범창 집사의 잔잔한 클라리넷 연주는 세례식을 앞둔 병사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날 진중세례식은 장병 200여명과 서울교회교우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병교육대 훈련병 57명이 세례를 받고, 20명이 입교를 하였으며 예배는 을지교회 군목 강일주 목사의 인도, 최광성 장로의 기도, 조원영 목사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란 제목으로 말씀선포, 세례식, 성

찬식, 축도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조원영 목사는 설교에서 세례의 은총은 죄를 없애주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게 해준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서명철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특히 세례식이 온전히 드러지는 동안 세례자 머리의 물을 닦아주시던 권사님들의 모습에서 자녀를 어루만지는 진실 된 마음으로 저들의 굳건함과 신실함을 기원하는 파스함이 전하여졌습니다.

세례를 받은 장병들에게는 기념으로 성경과 십자가, 스텐보온컵, 세면도구세트를 선물했으며 예배에 참석한 200여명의 장병들 모두에게도 장병들 최고의 인기 간식인 햄버거세트를 나눠주며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시고 먼 길 마다않고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과 기도로 동역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까지 군대의 복음화를 통하여 이 민족의 75%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비전2020운동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부대에서 진중세례식이 거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동 정

■ 이종윤원로목사는 9월 2일(토) 사랑의 쌀 운동과 몽골국제유란바타르대학교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득녀: 이경주 성도 박은애 성도
(2교구 박한웅 성도 신금전 권사 장녀 가정)

■ 금주의 식사: 오광환 장로 이안순 권사
오세인 집사 정소진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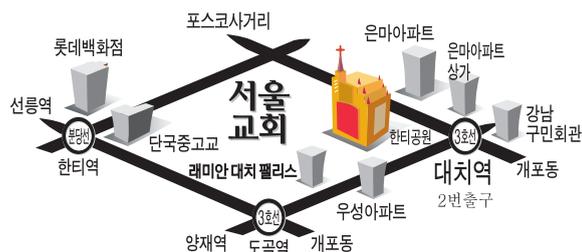
-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과 거짓 영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 우리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들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